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KIA 이준호·진해수 '태극마크' 단다

아시아야구선수권 대표 선발 … 13년 만에 정상탈환 나서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이준호와 투수 진해수가 13년 만의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정상탈환에 도전한다.

대한야구협회가 오는 28일 대만에서 개막하는 제26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 24명과 코치진을 지난 31일 발표했다.

이연수 성균관대 감독을 사령탑으로 한 대표팀은 올 시즌 KIA 외야의 샛별로 떠오른 이준호와 좌완 진해수, LG 투수 임찬규 등 프로선수 16명으로 주축을 이뤘다. 상무(2명), 경찰청야구단(1명)과 광주일고 출신의 동국대 내야수 강민국 등 5명의 대학선수도 포함됐다.

코치는 박치왕 상무 감독, 이상번 동의대 감독, 장재중 삼성 코치가 맡는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등 6개 나라가 참가하며 28일부터 12월3일까지 대만에서 개최된다.

16일 소집되는 대표팀은 25일까지 강화훈련을 실시한 뒤, 26일 현지로 출발한다.

한국은 1999년 시드니올림픽 예선전을 겸해 서울에서 열렸던 20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다.

◇국가대표 명단

▲감독 = 이연수(성균관대 감독) ▲코치 = 박치왕(상무 감독), 이상번(동의대 감독), 장재중(삼성 코치) ▲투수(9명) = 진해수(KIA), 임찬규(LG), 정인욱(삼성), 진명호(롯데), 윤근영(한화), 윤지웅(경찰야구단), 김대우(상무), 김민수(성균관대), 홍성무(동의대) ▲포수(3명) = 이재원(SK), 최재훈(두산), 김민수(영남대) ▲내야수(7명) = 오선진(한화), 김용의(LG), 최윤석(SK), 정훈(롯데), 류지혁(두산), 조평호(NC), 강민국(동국대) ▲외야수(5명) = 이준호(KIA), 나성범(NC), 서용주(동의대), 정형식(삼성), 이영욱(상무)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3년 KIA는 □ 이다"

네모 채우기 온라인 이벤트

WBC 관람권 등 상품 다채

KIA 타이거즈가 온라인 이벤트를 연다.

KIA가 1일부터 구단 홈페이지(www.kiatigers.co.kr)에서 네모 채우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주제는 '2013년 KIA 타이거즈는 □이다'로 팬들이 생각하는 내년 시즌 KIA의 모습을 네모에 채우면 된다.

행사 참가자들을 위한 상품도 마련됐다. 201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만 본선 관람권 4매, KIA 무릎 담요 400개, 모자 300개, 텀블러 300개 등 총 1004명에게 상품이 돌아간다.

한편 이번 행사는 마무리 캠프 일정으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호랑이 가족 한마당이 열리지 못하면서 마련됐으며, 기존 행사 소요 비용 중 온라인 이벤트 소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김동재 코치 돕기 성금으로 기탁 된다.

성금은 12월 중 선수단 상조회에서 개최하는 '김동재 코치 돕기 일일호프'를 통해 전달된다.

KIA는 "일정과 장소상 호랑이가족 한마당을 개최하지 못해 온라인에서 많은 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며 "이벤트에 참여하는 팬들의 이름으로 김동재 코치 쾌유 성금이 전달된다. 2013년 KIA타이거즈의 힘찬 모습을 팬들이 그려내는 이벤트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2군 남해에 마무리 캠프

오키나와에 이어 남해에 KIA 마무리 캠프가 차려진다.

KIA 타이거즈 2군 선수단이 1일부터 남해에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인 마무리 훈련에 돌입한다. 무등 경기장과 함평 전용 연습구장에서 마무리 훈련을 해왔던 선수단은 남해로 자리를 옮겨 오는 29일까지 마무리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철우 총괄코치가 지휘하는 2군 선수단은 코칭스태프 5명과 투수 8명, 포수 2명, 내야수 7명, 외야수 13명 등 35명이다. 투수 고영창과 외야수 최준식 등 신인선수 4명도 포함됐다. 캠프는 6일 훈련 1일 휴식일정으로 꾸려지며 체력훈련과 실전대비 기술 및 전술 훈련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인 MLB 골든 글러브는 언제…

추신수 우익수 부문 수상 실패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미국프로야구 포지션 별 최고 수비수에게 주는 골드글러브에 도전했던 '추추 트레인' 추신수(30·클리블랜드 인디언스·사진)가 수상의 꿈을 접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지난 31일(한국시각) 양대리그 골드글러브 수상자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추신수는 제프 프랑코어(캔자스시티 로열스), 조시 레딕(오클랜드 애슬레틱스)과 함께 우익수 부문 최종 수상 후보로 올랐으나 영광을 레딕에게 내줬다.

강한 어깨와 폭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는 추신수는 수비율 0.993을 기록, 프랑코어(0.985)와 레딕(0.982)을 따돌렸다.

그러나 보살에서 7개에 그쳐 각각 19개와 14개를 기록한 프랑코어와 레딕에게 크게 밀렸다.

뜬공과 파울을 직접 처리하는 풋아웃(putout) 수치에서 275-242로 프랑코어를 제압한 레딕은 전 부문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생애 처음으로 '황금장갑'을 끼었다.

뉴욕 양키스의 1루수 마크 테셰이라는 통산 5번째 1루수 골드글러브를 차지했고, 텍사스 레인저스의 3루수 아드리안 벨트레도 4번째로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내셔널리그에서는 야디에르 몰리나(세인트루이스)가 최고 포수(통산 5번째)로 공인받았다. 마크 벌리(마이애미)와 지미 롤린스(필라델피아)도 각각 투수,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4개째 수집했다.

/연합뉴스

육상 박태경·수영 김지현 '연패상'

전국체전 광주선수단 해단식

감독·선수 등 250여명 참석

광주시체육회가 지난 31일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광주선수단 해단식을 열었다.

입상팀 경기단체회장, 학교장, 입상팀 감독, 코치, 선수 등 250여명이 참석한 해단식은 박재현 총감독(시체육회 사무처장)의 단기반환을 시작으로 선수단 성적보고, 성취상(2위) 봉정,종목별 우승컵 봉정, 시상,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육상 110m 허들 4연패를 이룬 박태경(광주시청)과 수영 배영 50m 3연패를 달성한 김지현(광주체고)이 연패상을 수상했고, 체조 단체종합 금메달과 이단 평행봉 동메달을 따낸 김효빈(광주시체육회)은 입상선수 금메달 대표로 상을 받았다. 태권도 정대영(조선대)과 레슬링 홍영철(광주체고)은 각각 은·동메달 입상선수 대표로 나섰다.

2시간39분47초의 대회 신기록으로 여자 마라톤을 제패한 노현진(광주시청)은 특별상의 주인공이 됐다.

배영 50·100m(김지현), 스프링보드 3m(류민재·광주체고)의 금메달을 비롯해 금3, 은1, 동2의 성적을 이끈 수영(경영·다이빙) 고등부 이지현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다. 광주시청팀의 금빛 레이스를 주도한 육상 노승석 일반부 코치는 코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합 1위를 차지한 광주시근대5종연맹 김영근 회장과 종합 3위를 차지한 양궁협회 김광아 회장, 우슈쿵푸협회 한승남 회장, 소프트볼협회 위홍주 회장은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영록 광주체고 교장과 류춘호 동신여고 교장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한편 광주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금38개, 은37개, 동54개 등 총129개의 메달(종합득점 2만6410점)을 획득하며 2003년 원정 참가대회 이후 8년 만에 종합 13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보다 3737점을 추가하며 개최지 대구에 이어 성취도 2위를 기록, 국무총리배를 수상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 선수단이 지난 31일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전국체전 해단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지난해 열린 제5회 김인국수배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경기 장면.

강진서 김인국수배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내일부터 4일간 열려

제6회 김인국수배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가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강진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강진군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국기원과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대만,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총8개국 350여명이 참가하며, 남자단체전, 여자단체전, 개인전 등 3종목에서 최강자를 가리게 된다. 김인국수배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는 김인 국수와 김 국수의 고향인 강진을 널리 알리는 한편 시니어 바둑팬들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장려하고 세계인들과 함께 바둑사랑의 정신을 잇기 위해 6년째 열리고 있다.

경기는 승점 가산제인 스위스리그 방식으로 흑 6집반 공제, 제한시간 25분, 초읽기 30초 3회의 룰로 치러진다. 최종우승자에게는 3백만원의 시상금과 트로피를 부상으로 받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